



[금융] 신한금융 비상 2020전략 05



Economy

코스피	2155.07 (-21.39)	코스닥	655.31 (-14.62)
금리 (미국 3년)	1.28 (+0.01)	환율 (원/달러)	1172.10 (+5.00) (6일)

# 지상 최대쇼... 'AI·IoT·플라잉카' 혁신주도 'K 빅3'

(삼성·LG·현대차)

## CES 2020 오늘 개막

155개국 4500개 업체 한 자리에 국내 정유·중공업·유통도 첫 참가 삼성·LG전자, AI 접목 화질경쟁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개막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앞 야외전시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소비자가전쇼) 2020'이 7일(이하 현지시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막했다. <관련기사 2, 3, 6면>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CES는 글로벌 ICT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지상 최대의 가전·IT 전시회다.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는 개막과 동시에 전시장을 찾은 관계자와 방문객의 엄청난 인파를 보면 이 전시회의 인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글로벌 전자·IT·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협업을 확대한다. 이번 전시는 155개국

45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올해는 국내 정유·중공업·유통업체 등이 처음으로 참가해 눈길을 끈다.

국내 전자업계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화질 경쟁에 돌입했다.

양사가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8K 화질을 극대화하고 진화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하는 'QLED 8K' 신제품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고난도 기술력과 화면 베젤을 없앤 혁신적 디자인 등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LG전자는 8K 화질을 완벽 구현하는 기술력과 다양해진 제품 라인업을 강점으로 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먼저, 8K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LG 시그니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8K 관련해

기존 88형에서 77형을 추가하고, LG 나노셀 8K는 기존 75형에 65형까지 늘렸다. 기존보다 화면 크기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또 양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첨단 IT 기술과 가전의 융합으로 바뀌는 일상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 '패밀리허브'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CES2020'에서 선보이는 패밀리허브 신제품은 '푸드 AI'로 개인에 맞는 식단과 레시피를 제안해 준다.

LG전자는 이번 CES 부스 공간의 3분의1을 AI에 할애한다. '어디서든 내 집처럼'을 주제로 한 'LG 씬큐 존'에서 관람객들은 AI 연결로 집 안팎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특히 'LG 씬큐 홈'에서는 LG전자의 토털 AI·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3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 중동발 리스크로 코스닥 2%대 뚫

'중동 리스크'가 우리나라 주시장을 짓눌렀다. 코스닥지수는 2% 이상 급락했고, 코스피지수도 1% 가까이 하락했다.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4.62포인트(2.18%) 내린 655.31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로 장을 끝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1개, 내린 종목은 783개였으며 27개 종목은 포함 마감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체 제거로 무력 충돌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172.1원에 마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라임 투자 '데스노트' 9社 1년 새 시총 1.5조 증발

에스모,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원금 손실 사태 불안감 장기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장사 주가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라임운용이 투자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적힌 9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최근 1년새 1조5000억원이나 허공에 날아갔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매자닌채권(CB, BW) 등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1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라임운용 '데스노트'로 불리는 기업의 명단에는 에스모, 에스모 머티리얼즈(옛 네패스신소재), 디에이테크놀로지, 블러썸앤씨, 동양네스웍스, 리드, 슈펙스비엔피, 플루스바이오팜, 켈백스, 켈백스지오, 에이스테크 등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좀비기업' 등으로 표현되며 기업 이미지 실추와 기업가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라임사태의 오명을 지우지 못했다. 더욱이 라임운용이 최대주주였던 '리드'는 경영진들이 조가조작·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거래정지를 당했다. 또 플루스바이오팜은 2019년 반기 재무제표에 감사인으로

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 7개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데스노트에 적힌 11개 종목 중 켈백스, 에이스테크를 제외한 9개 기업의 주가가 최근 1년 새 평균 70.1%나 급락했고, 사라진 시총만 1조5720억원이다.

이는 라임운용의 사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리드'와 같이 언제 사태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쌓여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물량도 부담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매자닌 발행사들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어서다. 일부 기업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유동성위기에 처한 라임운용은 전환가가 주가보다 높은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CB를 전환하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에스모 머티리얼즈 CB 40만6503주를 3690원에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23~26일에도 같은 가격에 514만9048주를 전환했다. 현재 주가(1630원)와 비교하면 50%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또 동양네트웍스 2157만5984주를 533원에, 슈펙스비엔피 700만주를 500원에 전환했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공황상태' 글로벌 증시

이란이 카셀 솔레이마니 최고 군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높아지자 걸프 협력위원회(GCC)의 7개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걸프 증시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6일 국내 증시도 '중동 리스크' 부각으로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69.93) 보다 14.62포인트(2.18%) 내린 655.31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176.46) 보다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에 거래를 끝냈다. /연합뉴스

## 법제화 앞두고 8000억 몰린 P2P... 연체율 급증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P2P(개인 간) 금융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 만큼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 시행까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연체율도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연체율 외에도 업체 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공시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윌 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 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 3개월 만에 8000억원 ↑ 연체율 8% 육박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논의되던 지난해 8월 말부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말 대출잔액은 4조7358억원에서 11월 말 5조5800억원으로 8442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점.

한국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말 4.87%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작년 11월 말 기준 7.89%에 달했다. 타 금융업권의 평균 연체율은 카드사·캐피탈 2%, 저축은행 5.27%로다. 연체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업체도 있다.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상환일이 30일 이상 지났는데도 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80%라는 의미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 관리에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순히 중소P2P업체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요즘은 안정적으로 평가되던 대형 P2P업체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연체율 말고도 부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연체율만으로 부실확인 어려워'

이에 따라 정확하게 P2P업체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추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P2P금융법은 P2P업체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가 골자다.

<5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